

제11회 평의원회 회의록

□ 개 요

○ 일 시 : 2022. 07. 06(수), 15:30 ~ 17:30

○ 장 소 : 행정본관(E14) 1층 제1회의실

○ 참석자 : 재직 평의원 11인 중 11인 참석

- 의장 신하용, 부의장 정선태(사임 표명), 고정식, 김소영, 김유승, 김진우, 박성동, 유승화, 이동민, 이병욱, 이희승 평의원

※ 대리인 : 기획처장 김경수

※ 배석자 : 여현덕 뉴욕캠퍼스 자문역, 여화수 평택캠퍼스 추진단 건설위원장, 전효리 경영전략팀장, 김철훈 캠퍼스 설립 지원팀장, 김건철 고객경영팀장 등

□ 주요 논의내용

○ (제1호) 전기(제10회) 회의록 보고

- 안전을 원안대로 접수함.

○ (제2호) 멀티캠퍼스 추진현황 보고

① 평택캠퍼스

- 여화수 평택캠퍼스 추진단 건설위원장께서 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.

- 현재 추진 중인 평택캠퍼스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및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

- 다만, 평택캠퍼스 신규 설립으로 인해 KAIST의 역량이 분산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단순한 규모 확장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
→ 이에 대해, 본원의 자원을 평택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, 교육·연구는 대전 본원에서 이루어지고 평택에서는 심화연구 및 인턴십 등 현장과 연계가 필요한 활동들이 수행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음.

② 오송캠퍼스

- 전효리 경영전략팀장께서 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.
 - 평택캠퍼스에 비해 오송캠퍼스는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
 -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원 400여명 규모의 신규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, 국내 교원이 아닌 해외 우수 교원을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
-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(교원 수 등)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, 오송캠퍼스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.

③ 뉴욕캠퍼스

- 여현덕 뉴욕캠퍼스 자문역께서 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.
 - 현지 부동산을 기부받아 뉴욕캠퍼스를 구축하려던 계획에서 NYU와의 공동 캠퍼스 구축으로 추진방향이 전환된 이유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.
- 이에 대해, 개인 기부자에 의존하는 캠퍼스 구축보다는 세계 우수 대학과 협력을 통한 캠퍼스 구축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음.
- 뉴욕캠퍼스에 창업 전진기지를 두는 것이 기술 유출 등의 측면에서 우려할 점이 있음이 지적되었고, 큰 시장을 대상으로 창업을 기획하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.
 - 교수·학생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긴 기간동안 해외대학에서 지내며 NYU 교원을 공동 지도교수로 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.
- 이에 대해,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만 joint degree이기 때문에 뉴욕에 설립된 KAIST 재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있었음.
- 추진 계획에 2단계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.
- 1단계는 국내에서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, 2단계는 뉴욕 현지에서의 요구 사항을 살피는 단계가 될 것이고 2단계에서의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.
- NYU 교원의 Joint 임용으로 인한 대학랭킹 상승과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인

재 유입이 뉴욕캠퍼스 설립 목적 중 하나라는 설명과 국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목적과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.

- 막연한 국제적 인지도/랭킹 향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, 뉴욕캠퍼스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
- 이러한 구체적 목적이 타당하고 꼭 필요한지, 뉴욕캠퍼스를 통해서 실현가능한지,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조사가 되어야 함.
- 특히, 코넬대와 테크니온 공대의 협력으로 뉴욕시에 설립된 Cornell Tech의 사례 등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 : 테크니온의 입장에서 무엇을 지불하고 무엇을 얻었는지, 우리의 경우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살펴야 함.
- 뉴욕캠퍼스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이후 재논의하기로 함.
- 이번 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들어 본 것이며, 이 사안의 추진에 대한 평의원회 동의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함. 추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전에 다시 논의해야 함.

○ (제3호)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보고

- 김건철 고객경영팀장께서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설명함.
- 현재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은 내부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FAQ 또는 짧은 홍보영상 등을 통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

○ (제4호) 총장 임기연장 관련 보고

- 총장 임기연장 등에 대해 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,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음.
- 내부 의견 수렴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, 목적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안을 만들고, 이를 공청회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.
- 교수 그룹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의 경우에도 각 그룹별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검토안 작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

○ (제5호) 제2대 평의회 선거관리위원회(보궐) 구성(안)

- 정선태 평의원(부의장)께서 평의원직을 사임하기로 함.
- 제2대 평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하고, 위원은 각 구성단체별로 추천을 받기로 함.